

전주한지, 조선의 공궤를 다시 입히다

전주한지협동조합·신협중앙회 협력으로 창덕궁 연경당 권역 도배공사 완료

전주한지의 은은한 멋과 견고함이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공궤 건축물인 창덕궁 연경당에 입혀졌다.

전주한지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 '창덕궁 연경당 권역 도배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창덕궁 연경당의 안채와 사랑채, 선향재, 내·외행랑 등 주요 건물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도배공사는 국가유산 수리 원칙에 따라 원형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진행됐다. 시공 면적은 총 815.625㎡에 달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전주한지 약 1만 여장이 사용됐다.

시공에는 기존 재료와 동일한 재질의 전주한지가 사용됐으며, 초배와 재배, 정배로 이어지는 전통 도배 기법



전주한지의 은은한 멋과 견고함이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공궤 건축물인 창덕궁 연경당에 입혀졌다.

이 철저히 적용됐다. 특히 단순한 벽지 교체를 넘어, 장판 지 시공 후 종배과 들기름 먹임 등 전

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전주한지 특유의 내구성과 미감을 극대화했다. 또, 창호 작업 역시 세밀하게 마감해 창덕

궁의 격조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신협중앙회의 적극적인 후원이 뒷받침해 가능했다. 전주한지협동조합은 신협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전주한지의 활용 범위를 국가적 상징성을 띤 공궤로 확대하며, 한지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날 창덕궁 연경당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신협중앙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주전통한지의 국가유산 복원 재료로서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한지가 단순한 기록 용지를 넘어 국가유산 수리의 핵심 재료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한지가 국내외 주요 문화유산 복원 현장에 표준 재료로 채택될 수 있도록 품질 인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 올봄에 돌봄센터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놀면서 살 빼고 건강 키워요”

전주시보건소,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전주시가 아동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놀면서 살을 빼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 올봄에 돌봄센터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이 비만이 만성질환 유발률을 높이고 성인기 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놀이형 영양 교육 △체험형 신체활동으로 구성돼 체력과 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건강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현재 총 3개 기관을 모집해 기관별 주 1회, 12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아동들은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균형 잡힌 식습관과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게 된다.

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 전·후 비만도(BMI) 검사와 건강 습관 평가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아동의 신체 변화와 생활 습관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추진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운동과 영양, 흡연·음주 예방, 구강 관리 등을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비만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 중 체지방률 표준 이상자(남자 20% 이상, 여자 28%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탈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영양 교육과 운동 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비만을 관리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청사 별관 이전 완료

별관 내 총 34개 과 배치로 분산 행정기능 안정적 재편

전주시는 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에 따라 별관 내 총 34개 과와 스카이라운지, 강당(240석) 등의 배치를 완료하는 등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별관 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새 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을 활용에 필요한 행정 공간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주시청사 별관은 연면적 1만4616㎡ 규모의 지하 5층~지상 15층 건물로,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새 청사를 신축할 경우 최소 6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6~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시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선

택함으로써 약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약 2년 반 만에 완료했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이는 방식 대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한 결과물이다.

시는 옛 현대해상 건물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설계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해당 공간에 34개 과 배치를 마무리했다. 시는 사무실 외 1층·2층·14층·15층 공용공간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남은 공용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효율적인 청사 운영과 시민 편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청사 별관 확충사업에 따라 별관 내 총 34개 과와 스카이라운지, 강당(240석) 등의 배치를 완료하는 등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 사업은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 수요에 맞춘 시의적절한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별관 이전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시는 외부 청사 임차 종료에

따라 연간 임차료 16.8억 원과 임차보증금 40.8억 원의 부담이 해소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관 이전이 완료되면 서 반복적인 임차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청사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대상'

전주시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계적인 세정 운영에 힘쓴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과 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세수 추계 정확도 △세무조사 실적 △세납액 정리 △납세 편의 시책 등 다수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방세 징수율 및 증감률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실적 △세납자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 △합리적인 지방 세정 운영 및 납세 편의 시책 추진 등 전반적인 세

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현장 증진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아이앰 백일상·돌상 대여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 가정에 백일상과 돌상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백일상과 돌을 맞이한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백일상과 돌상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전주아이앰 백일상·돌상 대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지역 출생아 중 백일(생후 2~4개월) 또는 돌(생후 11~13개월)을 맞이한 영아 가정으로,

상차림 테이블과 접동 소품, 아동 의상 등으로 구성된 백일상·돌상 세트가 4박 5일간 무료로 대여된다. 단, 아동 의상 대여 시에는 세탁비 1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장난감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매월 초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전주시장난감도서관은 연회비 2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 신생아 용품 대여 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